

부자가족 아버지의 자녀 양육 자원에 대한 사례연구: 이혼한 남성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Parenting Resources of Fathers in Single-Parent Families:
Focusing on Divorced Man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 이만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박정윤***

Dept. of Child and Youth Studies, Chung-Ang University
PhD course Lee, Mansoo
Dep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Park, Jeongyu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초록〉

본 연구 목적은 부자가족 아버지의 양육경험을 탐색하고 부자가족 아버지의 양육경험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양육의 자원과 지지체계를 심층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참여자는 결혼 이후 이혼하여 재혼하지 않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5명이다.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례 간 연구를 통하여 2개의 주제, 5개의 범주, 17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연구를 통하여 부자가족 아버지의 양육 경험과 이로 인한 양육 자원이 도출되었다. 부자가족 아버지가 경험한 양육의 경험으로는 첫째, 이혼 이후 갑작스러운 양육으로 인하여 '양육 초기의 심리적 혼란'이 나타났으며 둘째, 양육으로 인하여 '위태로운 가족의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였다. 부자가족 아버지가 가진 양육의 자원으로는 첫째, 직장, 지인, 기관, 정부를 통한 '사회적 자원'이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되었다. 둘째, 형제들과 부모들과 같은 '가족적 자원'이 자녀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 자원이었다. 셋째, '내적 자원'으로 부자가족 아버지가 양육을 통하여 경험하는 책임감, 만족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들과 함께 자녀의 존재가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자가족 아버지가 겪는 양육의 경험 속에 나타난 양육의 지지체계와 자원 등을 기술하였고, 이를 통해 부자가족 아버지 상담의 실천적 방안과 교육 개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부자가족 아버지, 양육 경험, 양육 자원, 질적 연구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 졸업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주저자: 이만수(leemansuh@naver.com), <https://orcid.org/0000-0002-0525-6676>

***교신저자: 박정윤(pjy4838@cau.ac.kr), <https://orcid.org/0000-0002-0755-9697>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exploring the parenting experience of fathers in single parent families as well as comprehensively determining their parenting experiences and the various parenting resources and support systems that have emerged in the process. The subjects were five divorced fathers who had not remarried and had been raising their children on their own. This qualitative case study involved data collect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inter-case analyses derived two topics, five categories, and 17 concepts related to the issues of intere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first, there was “psychological confusion in the early stages of parenting” because of the sudden onset of this responsibility after divorce. Second, in the parenting experience, the fathers felt that “family survival was at stake”. Third the support systems that the fathers had in raising single parent families were “social resources” made available through workplaces, acquaintances, institutions, and the government. Such systems also took the form of “family resources” including brothers and parents. An “internal resource” was the presence of children along with psychological sources of support, such as responsibility and the satisfaction experienced by the fathers through parenting.

This study, uncovered the reality, resources, and support systems of fathers in single familie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will serve as a basis for supporting practical measures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fathers in single-parent households.

Key words: single father, parenting experience, parenting resources, qualitative study

I. 서론

우리나라는 1999년 IMF로 불리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가족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99년 IMF 이후 이혼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20). 조이혼율은 1997년 2.0명이었지만 점차 상승하여 2015년도에는 2.1명, 2019년에는 2.2명으로 과거에 비해 이혼 가정이 전체적으로 증가되고 있다(통계청, 2020).

한부모 가족의 형성 요인으로 이혼이 77.6%, 사별이 15.4%로 나타나 이혼이 한부모 가족이 형성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보다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현저하게 많으며, 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족은 2005년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통계청, 2019). 전체 한부모 가족 중에서 미혼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자가족은 18%이상으로 전체 한부모 가족의 비율 중 부자가족은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에 모자가족 뿐 아니라 부자가족 또한 중요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9).

가족이 속해있는 환경은 물리적인 생활공간과 함께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 즉 가족원의 구성과 관계, 부모와 자녀간의 양육의 과정까지 포함한다. 한부모 가족은 부모 중 한 명의 부재로 인하여 가족환경 속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 결핍, 자녀 양육, 사회적 편견,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이 가족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이다(노정자 2011; 박주희·한석실, 2017). 특히 부자가족의 양육 문제는 모자 가족에 비하여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오승하, 2015). 부자가족의 아버지는 자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두 가지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며 자녀 양육에 집중하기 어려우며 자녀 양육에 관하여 교육적이고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김기화, 2015).

부자가족과 모자가족으로 구분되는 한부모 가족은 형성 원인과 형태에 따라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고선강, 2015; 오승하, 2015; 장연진, 2016). 이로 인하여 한부모 가족으로의 형성 경로와 유형별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지만 한부모 가족 관련 선행 연구들은 모자가족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등을 다룬 연구가 활발한 반면 부자가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노영희·김상인, 2016; 성미애, 2020; 이해정·송다은, 2019). 부자가족 아버지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긍정적인 경험에 집중된 연구는 더욱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부자가족의 아버지에 대한 연구에 있어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자가족 아버지에 관한 연구들 중 자녀 양육 부담을 극복하고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자원과 강점을 파악하는 연구가 회소하기에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자가족 아버지가 양육

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자원과 지지체계 및 강점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통계적 수치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는 양적 연구는 적합하지 않기에 질적 연구를 통하여 부자 가족 아버지들의 삶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양육과정 속에 경험되는 어려움의 극복 자원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부자가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부족과 모자가족으로 치중된 연구 경향 가운데서 부자가족 아버지들이 자녀를 양육해 가는 실제적인 경험과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양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실제적인 자원들, 양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지체계를 파악하여 기술하려 한다. 이를 통하여 부자가족 아버지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상담 개입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자가족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자가족 아버지의 자녀 양육 경험을 심층 분석하고 기술하기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이혼한 부자가족 아버지가 겪는 부정적 경험들과 더불어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자녀 양육을 지속할 수 있었던 긍정적이고 가족 강화적인 자원들을 찾고 그들의 경험 속에서 양육을 지속할 수 있었던 실제적인 지지체계들을 탐색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부자가족 아버지가 경험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한부모가족 양육관련 연구 동향

한부모가족이란 모(母)나 부(父) 한쪽이 세대주인 가족이며, 모(母) 또는 부(父)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이거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자',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정의된다(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 17540호 제1장 제4조).

한부모 가족은 이혼 이후 배우자의 부재 이후 모든 상황을 홀로 수행하고 극복해야 하는 과정 속에 다양한 갈등과 역할과중의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가족부(2018)가 밝힌 한부모들이

밝힌 한부모가 된 이후 일어난 변화로는 '경제적 어려움',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 '집안일 부담 증가',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짐', '건강 상태 악화',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자녀와 긴밀해짐', '일가친척으로부터 자유로워짐' 등을 꼽았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한부모가 된 이후 겪는 가장 큰 두 가지 어려움은 자녀 양육이었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족 모두는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특히 부자가족 아버지는 양육에 있어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되어졌다(성미애, 2020; 오승하, 2015; Amato, 2005; Bernier & Miljkovitch, 2009). 부자가족 아버지의 경우 이혼 전 자녀 양육에 관한 일차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 이혼 이후 익숙하지 않은 자녀 양육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험하고 있었고, 한부모 가족이 된 이후 모자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지만 부자가족은 자녀 양육과 교육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다(김영란 외, 2016).

이혼 후 한부모는 정서적으로 취약해져 있었는데, 한부모 가족의 우울 장애율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5.5%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2016). 한부모 가족은 높은 수준으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녀 양육에 따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심각해지고 있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노영희·김상인, 2016).

2. 부자가족 양육관련 선행연구 고찰

부자가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부자가족이 자녀 양육에 관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부자가족 아버지가 양육에 관한 어려움을 모자가족보다 더욱 높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성미애, 2020; 오승하, 2015; Amato, 2005; Bernier & Miljkovitch, 2009). 부자가족은 아버지와 자녀간의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며, 이에 부자가족 아버지들은 양육의 어려움을 더 호소하고 있었다(김영란 외, 2016). 부자가족은 이혼 이후 대화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부자가족의 부모·자녀관계의 만족도는 모자가족보다 더 낮게 나타나며, 자녀 양육이나 가사노동의 어려움도 부자가족이 더욱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문은영, 2011).

부자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험 속에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장연진(2016)의 연구에서 부자가족이 모자가족보다 긍정적인 가족관계는 낮고 부정적인 관계는 높다고 나타났으며, 부정적 상호작용 또한 높았다. 김재엽과 양세정(2013)의 연구에서는 부자가족이 모자가족에 비해 기능적인 의사소통 수준이 낮고 이는 부자가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황은숙(2007)의 연구에서도 자녀양육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부자가족은 모자가족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자가족의 양육적 특성을 연구하는 선행연구들은 부정적 경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부자가족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을 가져오고 있었다. 성미애(2020)의 연구에서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자가족 아버지는 한부모가 된 이후에 차별적 시선과 경험들이 한부모가 된 이후에 다가오는 어려움이라고 지각하였으며, 이혜정과 송다영(2019)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인 차별 경험이 부자가족의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자가족 아버지를 연구한 다양한 연구들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자가족 아버지들이 불안과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한다. 한정원(2014)의 연구에서는 부자가족은 사회적인 편견과 사회적 단절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노정자(2011)의 연구에서는 부자가족의 아버지는 이혼 후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과 이로 인한 신체적인 질병 등으로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부자가족 아버지가 경험하는 또 다른 특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고선강(2014)의 연구에서는 부자가족 아버지는 소득수준이 낮진 않았지만 부채비율이 높아 경제적인 취약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정자(2011)의 연구에서 부자가족 아버지는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 등의 역할 과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며 이 기간 또한 길다고 분석하였다. 부자가족 아버지는 직업을 고려할 때에 자녀 양육과 가사를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기에 이로 인한 직업선택의 기회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어 빈곤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에 이루어진 부자가족 아버지의 양육 경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질적 연구로 수행되었는데(김영은, 2016; 문은영, 2011; 박현정·이기연·정익중, 2014; 이선영, 2014; 임경택, 2015), 대부분 부자가족 아버지가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과 경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부자가족 아버지의 다양한 양육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존재하는 것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긍정적인 삶의 경험과 자녀 양육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자원들 또한 일부 존재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부자가족 아버지 중에서 일부는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서라도 자녀 부양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자녀의 양육과 성장을 위하여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고(임경택, 2015),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의 시간이 존재하지만 그 시간들이 아버지로서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성숙하게 하는 경험이 됨을 발견하기도 하였다(노정자, 2011). 자녀들이 자신의 희망의 증거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하였으며(박현정 외, 2014), 자녀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였다(이선영, 2014).

III. 연구방법

1.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는 이혼 이후 자녀 양육을 하는 부자가족 아버지의 경험이라는 경계를 지은 제한된 경험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사건, 현상들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Denzin & Lincoln, 2005; Strauss & Corbin, 1998). 부자가족 아버지들의 다양한 경험 중에서 양육 경험의 과정에서 존재하는 자원과 지지체계가 무엇인지 기술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질적 사례연구는 하나의 경계를 가진 사례를 규정하여 이를 탐색하고 심층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사례를 통한 주제를 이끌어 낸다(Robert, 2014). 사례연구에서 사례는 주변의 다른 체계들과 구별된 뚜렷한 경계를 가진 제한된 경험이어야 한다(Stake, 1995). 방대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본질과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경계선을 가진 경험과 사례를 확인하여 그것에 대한 상세한 이해와 탐색을 하며,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도출된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John, 2013). 부자가족 아버지들의 경험 또한 제한된 사례로서 경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질적 사례연구로 연구를 수행하여 부자가족 아버지들의 독특한 양육 경험들을 경계 지어 본질을 파악하려 한다.

2.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들은 이혼한 부자가족 아버지와 만 18세 이전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자가족이다. 40-50대의 연령을 가지고 있으며 이혼 후 1명에서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결혼의 기간은 7년 이하로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였고, 이혼 후 양육 기간은 9-15년까지로 비교적 오랜 기간 자녀를 양육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기초수급계층, 차상위 계층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각 가족별로 복합적인 이유로 이혼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지목된 이혼의 사유로는 빈곤이었고, 이어 부부갈등, 배우자 외도,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가출과 양육실패 차이였다. 이혼 전부터 이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가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이후 원가족의 양육을 지원받은 부자가족은 2가족으로 절반이 넘는 부자가족이 원가족의 도움 없이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나이	양육자녀	결혼 기간	이혼후 양육기간	소득 계층	이혼사유	원가족 양육지원
1	48	12세(남) 11세(남)	5년	9년	차상위	배우자 가출 부부 갈등	무
2	50	18세(여) 16세(여)	3년	15년	기초 수급	부부 갈등 빈곤	유
3	46	17세(여) 14세(남) 12세(여)	7년	10년	기초 수급	배우자 외도 빈곤	무
4	42	15세(여) 13세(남)	7년	10년	중위	빈곤 배우자 외도	무
5	56	14세(남)	3년	10년	기초 수급	빈곤 양육신념 차이	유

3. 연구 자료 수집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관심을 표현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동의하고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을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이며, 심층면접을 통하여 녹취된 자료를 통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회기마다 60-90분씩의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도록 지지하고 그 내용을 모두 녹취 또는 기술하였다. 연구의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윤리적인 내용을 동의서에 설명하였고 동의한 후 연구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녹음한 내용 중 확실치 않거나 일치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로 질문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 사전에 준비한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질문하였고 현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폐쇄형 질문도 사용하였다. 질문내용은 양육경험 과정의 내부와 외부의 자원과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무엇이었는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주변에서 받은 도움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한부모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어떠한 지원들을 받았는가, 자녀 양육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녀 양육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로 구성하였다.

4. 연구 자료 분석

Stake(1995)는 질적 사례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권장하였다. 먼저 사례 내 분석을 통하여 각 사례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그 사례 내의 주제들을 파악하고, 사례 간 분석을 통하여 사례들에 걸친 주제를 분석하며 분석된 의미에 대한 해석을 한다. 사례 내 분석에서는 각 참여자 별로 그들의 경험들을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중심으로 분석하

고 조직화하며, 사례 간 분석을 통하여 각 사례들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며 각 사례들에게 경험된 경험들의 관계 속에서 밝혀진 의미들을 조직화하고 분류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전사된 축어록을 지속적으로 읽고 코딩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통하여 각 경험들 간의 관계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경험들 속에 존재하는 연관성을 찾아내었다. 파악된 경험들이 어떠한 의미들을 전달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개념화시켰으며, 개념화된 자료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주화된 개념들을 주제화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혼 과정과 이혼 후 적응의 과정 속에 나타난 자원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사례 내 분석을 하였고, 이후 사례 간 분석을 통하여 분석된 범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속에서 양육의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측면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범주들과 개념들을 기술하였다. 사례 간 분석을 통하여 각 사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개념들 중 공통요소들을 묶어 범주화시켰다. 이를 토대로 연구내용과 관련된 연구주제들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21개의 개념, 6개의 범주, 2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례 간 분석 결과 도출된 주제들은 크게 ‘양육의 실제’와 ‘양육의 자원’의 주제로 분석되었다. 이 장에서는 각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주들을 예증적 방식으로 기술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사례 간 분석을 통한 주제 도출

주제	범주	개념
양육의 경험	양육 초기의 심리적 혼란	배우자의 가출과 양육 포기
		양육 어려움으로 인한 알코올 의존
	위태로운 가족의 생존	가족의 생존을 위한 인내
		자녀와 상호 의사소통의 어려움
		양육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함
양육의 자원	사회적 자원	전 배우자를 향한 부정적 감정의 전이
		재정적 결핍으로 인한 가족의 위기
	가족적 자원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 돌봄 기관
		정부의 최저생계 지원
		종교를 통한 어려움의 극복
내적 자원	직장의 자녀 양육 지원	
	형제자매들의 양육 도움	
	노부모와 함께하는 자녀 양육 참여	
		자녀 양육에 관한 책임감
		자녀들의 성장이 주는 심리적 여유
		자녀 양육이 주는 만족감
		삶의 의미가 되는 자녀의 존재

1) 양육의 경험

(1) 양육 초기의 심리적 혼란

① 배우자의 가출과 양육 포기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전 배우자의 가출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원하지 않는 이혼을 하게 되고 자녀까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한 번 몰래 싸우는 것도 없이 그냥 한 번 보따리 싸가지고 나갔어요. 위치추적을 하니까 광주에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그냥 나왔고 그카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또 한 번 가출을 하고 이제 안 찾아가. 그래갖고 그 이후에 이혼을 하고 애들을 양육하게 됐죠.” (참여자1)

“결론은 돈 많이 못벌어다 주는게 이유였죠. 그냥 나가버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아빠가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그랬던 준비되지 않고 그냥 갑작스럽게 얘기를 맡아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작이 됐거든요.” (참여자5)

② 양육 어려움으로 인한 알코올 의존

이혼 이후 참여자들은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남겨진 자녀들을 돌봐야 함과 동시에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

험하였다. 현실에 대한 절망감과 떠나간 아내에 대한 배신감, 남겨진 자녀들의 양육의 무게가 불면증과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기 위하여 알코올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었으며 정신과 치료와 같은 의학적 도움은 받지 않고 견뎌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인제 내가 인자 엄마가 나가고 나서 그 애를 인자 내가 맡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막 정말 막 술을 달고 살았어요. 한 삼년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계속 술 먹고 막 그러니까 막 힘드니까. 애들을 키우는데 이제 그 막 이래 막 불안한 이런 마음이 한 3년을 그렇게 했었어.” (참여자1)

“저도 집에서 술을 많이 먹었죠. 술을 맛으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시는게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잊으려고 술을 찾는 거고, 하루하루 그냥 버티어 나갔던 거고. 그때는 일주일 정도 그냥 아무 일도 못했죠. 애들하고 집에만 있었거든요(울음).” (참여자3)

③ 가족의 생존을 위한 인내

참여자들은 이혼 이후 남겨진 자녀를 돌보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빠져 있거나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당장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부족한 자원들을 통해 극복하고 자녀 양육을 지속해야 했기에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살아온 비결이라는 건 없네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산 거 밖에 없어요. 다른 극단적인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요.” (참여자3)

“그래도 아빠니깐 버텨보자, 버텨보자라고 한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애들이 좀 클 때까지 기다리자, 클 때까지 기다리자, 클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참여자4)

(2) 위태로운 가족의 생존

① 자녀와 상호 의사소통의 어려움

참여자들이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일차적인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관계적인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대화의 단절과 소통의 부재를 겪고 있었다.

“대화가 안 되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이쁜데 진짜 예쁘잖아요. 이쁜데 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한 어려움이 있어요.” (참여자1)

“그게 혼자 키울라니까 아들하고도 대화가 좀 안 되고, 뭐 혼자 방 안에서 맨날 이것저것 쓰고 있거든요. 아들하고 아빠하고 좀 거리감이 될 수 있죠.” (참여자5)

② 양육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함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하루하루 견뎌가고 인내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심리적, 환경적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며 심리적 고통은 더욱 심해져 갔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버티다 자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살 시도와 같은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행동 또한 선택하였다.

“저는 진짜 자살하려고 했어요. 자살할 뻔했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편지도 다 써 놓고, 내가 죽으면 애들 고아원에 보내면 내가 귀신이 되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써 놓고, 유언장도 써 놓고 그랬어요.” (참여자2)

“진짜 극단적인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요.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있지만 진짜 내가 없으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떠나지는 않아요.” (참여자4)

③ 전 배우자를 향한 부정적 감정의 전이

참여자들은 이혼 이후 전 배우자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배신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들은 참여자들과 다르게 전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면서도 미워하는 양가적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전 배우자에 대한 미움과 배신감을 자녀들도 함께 가지길 원하고 있었다.

“애들이 자기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가끔 한 번씩 애들보러 갔었어요. 근데 애들이 갔다 오면 더 미치더라고. 애들이 갔다오면 좋아야 되잖아. 갔다 오면 막 울고 불고 난리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도 울고 그러기에 ‘아빠는 괜찮으니까 엄마한테 가 살고 싶으면 엄마한테 가 살아라. 아빠가 엄마한테 보내줄 테니까 엄마한테 가 살아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애들이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예 안 만나고 있어요.” (참여자2)

“외할머니라면서 전화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갖고 니가 판단을 해서 받기 싫으면 차단을 시키라 그랬어요.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오고 그것도 다 차단시키고 큰애는 그랬죠.” (참여자3)

“저는 애들 폰에 전처 번호를 수신 차단 다 걸고 첫째 휴대폰에서도 수신 차단을 다 걸어 버렸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니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엄마를 자꾸 본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니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빠는 연락하는 거는 싫어라고 했어요.” (참여자4)

④ 재정적 결핍으로 인한 가족의 위기

참여자들은 이혼 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있었고, 이혼 이후에는 일-양육 병행으로 인하여 더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주위에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노부모가 있지 않는 경우 더욱 힘겨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 가운데 처해 있었다.

“일단 자식을 키우려고 그러면 일단은 돈도 돈이지만, 돈이 제일 어려운 것이었던 같아요.” (참여자1)

“제가 일용직을 시작을 한 이유가 또 애들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아침에 하나는 학교 일학년 일 학년이고, 둘이는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니까. 애들 키우면서 정상적인 일을 못하니까 그게 수입이 적어서 힘들었죠.” (참여자3)

“막막했죠. 그때는 회사 뭐 다녀봤자 뭐 백만원 좀 더 받아서 애를 갖다가 어떻게 키우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기초수급 대상자에 몸도 성치도 않은 누가 써줄라 그러지 않잖아요.” (참여자5)

2) 양육의 자원

(1) 사회적 자원

①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 돌봄 기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자녀 돌봄 기관들을 통하여서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특히 자녀들이 미취학 아동일 경우엔 어린이집의 돌봄이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가 되고 있었다. 이들 기관들은 참여자들이 자녀 양육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지지체계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 이제 어린이집은 아침 여덟 시에 내가 애들을 태워다 주고 일을 하러 가요. 가면은 이제 일이 잔업까지 하면 밤에 한 여덟 시 아홉 시에 끝나요. 그러면 또 그때 돼서 애를 데리러가요. 제일 큰 도움은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제일 컸지.” (참여자1)

“초등학교 가면은 뭐 12시나 1시 되면 마치는데, 그 이후로는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연계해가지고 아동센터가 그때 당시에 아파트 앞에 여기 있었거든요. 센터 차가 학교로 와서 센터로 태우고 왔었죠. 저기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구요.” (참여자3)

② 정부의 최저생계 지원

대다수 참여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저소득 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속해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들에게 정부의 다양한 재정적 지원은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유지를 가능케 하는 주요한 자원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주로 저소득 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이 받는 지원들을 받고 있었지만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지원들은 대부분 받지 않고 있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 쯤 어느 정도의 이제 희망이라 카는게 생겼어요. 희망키움 통장이라고 있어요. 그 하여튼 그걸 넣고 나서 하여튼 열심히 살았던 거 같애.” (참여자1)

“또 처음에는 제가 재산이 없으니까 군에서 인자 어떻게 일을 뭔가 하면은 혜택을 보고 뭐 주거 혜택 교

육 혜택 이렇게 뭐 몇 가지 항목에 그거를 혜택을 좀 받았어요.” (참여자1)

“그렇게 어려워서 수급자가 됐거든요. 한 달에 백만원 나오거든요. 세금 내고 먹는 거 백만원 가지고 사실상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애들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하니까 이거라도 받고 살았죠.” (참여자2)

“제가 비닐하우스를 그만두면서 기존 사업자 생활 수급자 그걸 신청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금 지원이 조금 나오고. 그때 당시 주거비용까지 하면 64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힘이었죠.” (참여자3)

③ 종교를 통한 어려움의 극복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참여자들은 가진 종교를 통해서 자녀 양육에 관한 지지와 도움을 얻을 뿐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정신적 에너지를 얻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자녀와 같이 종교를 가지는 것을 가족의 회복과 참여자 스스로를 위한 좋은 지지체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회 다니면서 좀 많은 걸 좀 느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보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생겼네요.” (참여자2)

“그리고 그때 당시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되게 어두웠어요. 그거를 이제 좀 전환하기 위해서 000교회 처음 나갔고요. 나갔다 왔는데 애들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어두운 표정보다는 좀 더 밝아지는 표정이었고 어 애들이 교회에서 이런 유치부에 가서 활발하게 놀면서 이제 바뀌게 되었죠.” (참여자4)

“아들도 올바르게 키워야 되잖아요. 교회를 갔죠. 오래전부터 다녔죠. 믿음을 갖는게 좋잖아요. 나쁜길로 성장하지 않게끔 아들은 더 올바르게 키울려고 교회에 좀 다니게 했죠.” (참여자5)

④ 직장의 자녀 양육 지원

참여자들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에 취직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배려가 없이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회사의 배려로 근무를 지속하며 생계와 육아를 지속할 수 있었다. 직장에서도 기관에서 하교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공간적 배려를 해 주었고,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조정해야 하는 시간적 배려도 이루어졌기에 일-자녀 양육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주었다.

“에 제가 그때는 그 연장보육이 없어가지고 다섯 시 되면은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계속 늦게 나가고 제가 일을 늦게 나가고 일찍 마쳤는데, 그 인제 아시는 분이 일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일을 했었죠.” (참여자3)

“제가 어딜 가도 회사에다 맡겨놔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친구들이 애들 밥 챙겨주기도 하고 제가 이제 끝 날 때 데리고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항상 집은 아니지만 놀이터 겸 항상 있었던 곳이 사무실이에요.” (참여자4)

(2) 가족적 자원

① 형제자매들의 양육 도움

참여자들의 형제자매들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지원 체계가 되었다. 자녀 양육을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이 참여자들이 부채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자녀들을 돌봐주며 재정적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토요일 일요일은 어린이집을 운영을 안 하잖아요. 맡겨야 될 것은 큰누나 집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 맡기고 제가 인자 돈을 벌러갔는데 큰 누나한테 미안하잖아요.” (참여자1)

“형제들이 애기 뭐 저기 뭐 옷도 주고, 음식도, 지금도 그래요. 형제들이 네 명이 있습니다.” (참여자5)

② 노부모의 자녀 양육 참여

이혼 이후 양육에 함께하였던 노부부는 참여자의 자녀 양육에 있어 주요한 지지체계로 존재하고 있었다. 노부부들은 자녀 양육에 함께하며 자녀들의 주 양육자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자녀 양육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다. 참여자와 함께 노부모 또한 갑작스럽게 양육을 시작하며 혼란스러워 하였지만, 손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녀와 함께 양육자로서 기꺼이 살아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노부모의 양육참여는 그 자체로 양육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자 지지체계였다.

“엄마가 올라온 것도 내가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겼어요. 노가다도 뛰고 그렇게 살아야 해서 엄마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어리니까 5학년 때까지 엄마가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왔죠.” (참여자2)

“부모님이 있어서 많이 보탬이 됐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돌봐주셨죠. 100일 밖에 안된 아이를 매일 업고 먹이고 우유타고, 부모가 없으니까 누가 해주요 어머니가 다 해주시는 거죠. 아들이랑 둘이 살려면 못 살았겠죠. 부모님이 도와주니깐 이렇게 살게 된 거죠.” (참여자5)

(3) 내적 자원

① 자녀 양육에 관한 책임감

참여자들은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며 다양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살시도와 자살생각을 할 정도로 힘겨워 하였지만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 참여자들에게는 내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양육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를 사랑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게 하는 심리적 자원이자 힘이었다.

“저는 포기라 키는 건 생각 안해봤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책임이거든.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1)

“솔직히 뭐 애들이 없었으면 편했겠죠. 근데 그냥 의무감 그런거. 티비 보면은 애들 포기하고, 고아원에 가고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저희 애들 만큼은 그래 안하고 싶어가지고.” (참여자3)

“그냥 어 어떻게 됐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되는 거는 변함은 없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내 새끼들이예요. 그게 마음 마음의 중심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참여자4)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이라니까요. 내 아들이니까. 사랑이 감정만 있으면 사랑은 아니죠. 책임을 져야죠.” (참여자5)

② 자녀들의 성장이 주는 심리적 여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이혼 초기 자녀가 미취학의 시기에 있을 때부터 양육을 시작하였는데, 시간이 지나 자녀가 자라면서 자녀가 참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성장하여 참여자들이 돌보지 않아도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었다. 자녀들의 성장으로 인한 심리적 환경적 여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겨났으며 이는 긍정적인 양육의 자원이 되었다.

“지금은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뭐 처음은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은 이제 저도 한 팔년 구년 키우다 보니까 이 어려움은 지나가고, 애들이 약간 크잖아요. 그냥 그 현실이고 그렇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참여자1)

“첫째한테 내가 솔직히 고마웠던 거는 둘째가 올면 내가 달래도 할머니가 달래도 우니까 자기가 데리고 가서 가서 엄마처럼 동생을 재우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참여자2)

“애들이 어릴 때는 그냥 간단하게 뭐 볶음밥 같은 거 해 갖고 그렇게 먹고 대충대충 해먹었죠. 반찬이 맨날 달라야 되니까. 애들이 조금 커가면서 이제 좀 많이 도와주고.” (참여자3)

“제가 작년부터 애들 좀 커가지고 이제 화물차 기사를 하고 있거든요. 화물차 기사는 수입이 썩 더 나니까.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길면 2~3일을 못 들어올 때가 많았었어요. 그때도 애들이 뭐 잘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이 여유가 생기고.” (참여자3)

③ 자녀 양육이 주는 만족감

참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함과, 학업으로 인정받는 것을 경험할 때 기쁨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었다. 자녀들의 성장은 참여자들의 역할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 자체로 참여자들에게 기쁨이 되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집안의 가사를 스스로 해결하고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고 경험할 때에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며 이로 인한 자녀 양육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얻고 있었다.

“옛날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애들이 커가잖아요. 제가 아들 둘을 키워봤지마는 실컷이 잘해. 청소도 잘하고, 아침에 설거지하고 청소좀 해보라 카면 짝 해놔요. 깨끗하게 해요.” (참여자1)

“이런 상황에서도 애들이 꿈은 확실해요. 자기들이 뭘 되고 싶다는 거는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는 걸 보면 좀 대견스럽죠.” (참여자4)

“학원에서 애를 팔세를 못해요. 성적은 선두에 스텁이거든요. 공부를 제일 잘해요. 그거를 보면서 뿌듯하죠.”

상장을 받아올 때마다 너무 좋고.” (참여자5)

④ 삶의 의미가 되는 자녀의 존재

참여자들 모두가 자녀 양육의 다양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가족과 스스로가 생존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에도 끝까지 참여자들의 자녀양육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존재 자체였다. 자녀들이 참여자들과 함께한다는 사실 자체가 양육을 지지하고 지속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자녀의 존재가 알코올을 끊게 하거나 줄이게 하며 중독으로부터 참여자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다. 자녀가 존재와 함께 자녀들의 참여자들을 향한 관심이 큰 내적 자원이 되어 참여자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참여자들이 자녀들을 돌보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참여자들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참여자-자녀 관계 속에 경험되어졌다. 자녀의 존재가 참여자들을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 양육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지지체계였다.

“애들이 나한테 할 말이 있네요. 뭘데 하고 물었더니, 아빠 술 끊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요. 그래? 알겠어. 아빠 끊으니까 하고 딱 끊어 버렸어요. 진짜 뒤질려고 하다가 살아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애들이 저렇게 나를 반기는데, 인생을 돈 갖고 사냐라고 다시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동물농장을 하게 된 거예요.” (참여자2)

“지금까지 온게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게 살아도 지금까지 온거겠죠.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았죠. 애들은 제가 지금 살아가는 힘이죠.” (참여자3)

“저 혼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술도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먹고 마음대로 먹고 술을 좋아하거든요. 지금으로서 현재 술을 먹어도 어느 정도 딱 주량만 먹고 안 먹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아들 아니었으면 술 주정뱅이가 됐을 거예요. 개 똥에 제가 사는 것 같아요.” (참여자5)

“나를 100%로 본다면 애들은 80%정도예요. 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데 와서 일도 하고 그래요. 우리아가 아니었으면 술 먹다가 갑자기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애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죠.” (참여자5)

V. 논의 및 결론

부자가족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양육의 실제 속에는 어려움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긍정적인 자원과 지지체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자가족 아버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어려움이 주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제로 존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려고 한다.

첫째, 부자가족 아버지들에게 존재하는 사회적 자원들 중 가장 대표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돌봄을 지원하는 센터들의 역할이 부자가족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관들을 통하여 부자가족 아버지가 노동이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주고 이로 인한 수입이 가족의 생존을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자녀 돌봄을 대행해줄 수 있는 다양한 기관과 프로그램들을 부자가족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알리어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부자가족 아버지들이 다양한 기관들에서 운영되는 돌봄의 지원을 알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자가족 아버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변에 다수 존재하는 종교기관을 통한 돌봄 서비스 또한 자녀 돌봄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종교 자체가 주는 신앙이 자녀 돌봄의 자원이 되고 있음과 함께, 종교 시설의 아동 돌봄 시스템 또한 부자가족 아버지의 가족을 지원하고 있었다. 종교 기관을 통한 부자가족 아버지의 자녀 양육이 지원되고 지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부자가족 아버지는 대체적으로 친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었다. 부자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적 자원은 대부분 원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는데, 그 중 가장 큰 지지체계가 되었던 것은 노부모의 양육 지원이었다. 이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등교와 하교 이후의 돌봄을 가능케 하는 대표적인 지지체계가 되었다. 부자가족 아버지들은 노부모의 양육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를 막고 있는 요소들을 해결하여 노부모의 양육 자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부모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또한 필요한데, 노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부자가족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부모가 양육을 함께하는 가구원의 수는 부자가족보다 많기에 한부모 가족 지원의 선정 기준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 노부모 또한 손자녀들을 양육하며 겪는 부정적 경험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서 긍정적인 경험들 또한 다수 경험되고 있기에 노부모와 아버지, 손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김영은, 2016). 이에 노부모의 자녀 양육 돌봄을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재고가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내적 자원이 부자가족 아버지에게 존재하고 있었다. 부자가족 아버지가 가진 책임감은 자녀 양육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내적 자원이었으며, 양육을 포기하고 싶을 때 기능하는 긍정적 자원이 되었다.

부자가족 아버지의 대표적인 내적 자원은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자녀들이었다. 이혼 이후 홀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큰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자녀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녀는 양육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자원이었다. 일반적으로 부자가족 아버지들은 자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녀 양육을 문제와 어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자녀가 자녀는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녀 양육의 핵심적 지지체계가 되고 있었다. 자녀의 존재가 부자가족 아버지의 양육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뿐 아니라, 부자가족 아버지의 생존까지 지지하고 있었다. 부자가족 아버지에게는 자녀의 존재가 주는 긍정적인 의미와 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의 교육과 상담적 접근을 통해 부자가족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양육 지원체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 가족적 자원, 아버지 자신의 내적인 자원 등의 발견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 긍정적이며 강점 중심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기개입을 통한 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부자가족 아버지에게 존재하는 자원과 지지체계를 인식하게 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 인한 부자가족 아버지의 양육 태도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져 부자가족 전체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가족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는 방향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자가족의 자원을 분석한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부자가족의 지원 방향을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어 스스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지체계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부자가족 아버지들을 향한 여성가족부의 지원 제도들은 대부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혜택들은 부자가족 아버지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경제적 지원으로 지원을 일반화시키는 방식으로는 적절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

본 연구와 다른 선행 연구(노정자, 2011; 오승하, 2015)에서도 밝혀졌듯이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게 된 부자가족 아버

지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이혼 초기에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이혼 이후 홀로 양육하게 된 초기의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 초기에 이루어지는 지원이 있을지라도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김희주·장연진, 2020; 임선호, 2014). 초기의 긴급한 지원을 위하여 부자가족 아버지의 지원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지자체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혼 후 부자가족을 선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혼 이후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판결되는 즉시 행정기관과 복지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이혼 후 교육의 의무화를 통하여 적절한 행정적 지원들이 부자가족 아버지에게 알려지고 지원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적인 선지원 또한 중요하다. 부자가족 아버지의 재정 지원 신청과 이후 심사를 통한 지원의 방식보다는 선지원 후심사의 방향으로 이혼 초기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초기의 어려움에 대응하고 극복해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혼 즉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을 의무화하여 심리 내면적 지원이 이혼 이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부자가족 아버지들의 지원과 회복 프로그램, 부자가족 자조모임, 온라인 상담과 교육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부자가족 아버지의 이혼 후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즉각적 개입을 통하여 부자가족의 어려움이 회복되고 건강성이 증진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1) 고선강(2014). 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상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93-114.
- 2) 고선강(2015). 부모의 성별에 따른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 차이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4), 95-120.
- 3) 김기화(2015). 부자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영란·황정임·최진희·김은경(2016). 부자가족의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6.
- 5) 김영은(2016). 조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김재엽·양세정(2013).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성별과 한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1), 1-22.
- 7) 김희주·장연진(2020). 취약계층 여성의 임신·출산 및 초기양육 지원에 대한 질적 연구. 가족과 문화, 32(2), 1-30.
- 8) 노영희·김상인(2016). 한부모의 자녀 양육어려움, 고용지위,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4(2), 167-185.
- 9) 노정자(2011). 이혼을 경험한 한부모 남성의 홀로서기 과정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0) 문은영(2011). 서울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자(父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사회연구, 1(2), 135-174.
- 11) 박주희·한석실(2017). Exploring the pretending elements in block play.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3(2), 23-38.
- 12) 박현정·이기연·정익중(2014). 이혼한 한부모 아버지의 양육 경험: 가정이라는 밀림 속으로 들어간 남자. 한국가족복지학, 41(9), 199-224.
- 13) 보건복지부(2016). 국민건강보험통계.
- 14) 성미애(2020). 청소년 자녀가 있는 남성 한부모의 어려움 관련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8(1), 1-15.
- 15) 여성가족부(2018).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
- 16) 오승하(2015). 한부모가정의 불안, 생활만족도, 사회적지간의 관계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7) 이선영(2014). 사춘기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버지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이해정·송다영(2019). 한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차별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5, 43-65.
- 19) 임경택(2015). 이혼남성의 자녀 양육 경험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 임선호(201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장연진(2016). 부자가족과 모자 가족 자녀의 사회적 자본 특성 비교. 가족과 문화, 28(2), 111-151.
- 22) 통계청(2019). 장래 가구 추계. 통계청
- 23) 통계청(2020). 혼인 이혼 통계. 통계청
- 24) 한정원(2014).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효과성 연구: 한부모가족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4(2), 159-195.
- 25) 황은숙(2007).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고충 비교 연구. 한부모가정연구, 2(1), 1-20.
- 26)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4조 제1장 제17540호.
- 27) Amato, P. R.(2005). The impact of family formation change on the cognitive,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the next generation. The future of children, 75-96.
- 28) Bernier, A. & Miljkovitch, R.(2009).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achment in father-child dyads: The case of single parenthood.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0(1), 31-52.
- 29) John, W. Creswell.(2015). 질적연구방법론-다섯가지 접

근-. 서울: (주)학지사.

- 30) Denzin, N. K, & Lincoln, Y. S.(2005). Introduction: The Discipline and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1-32). Sage Publications Ltd.
- 31) Simon, R. W.(1992). Parental role strains, salience of parental identity and gender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1),

25-35.

- 32) Stake, R. E.(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33) Strauss, A, & Corbin, J.(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Sage Publications, Inc.
- 34) Robert, K. Yin.(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 투 고 일 : 2022년 09월 16일
- 심 사 일 : 2022년 10월 21일
- 계 재 확 정 일 : 2022년 11월 11일